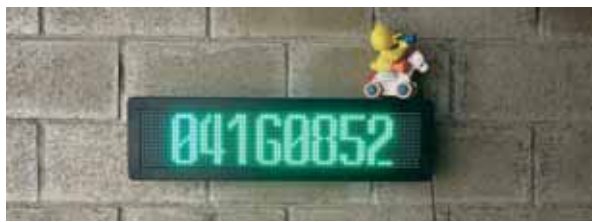


대한민국 폭력을 기억하라



박정용 작 'First sign'

세월호 사고·윤일병 사건 다룬 전시 잇따라

△제희갤러리 '온전히 求하리라'전 '04160852'

전시실에 걸린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LED 전광판에 점멸하는 숫자다. 전광판 위에는 노란 오리 장난감이 놓여 있다. 작품 제목은 'First sign'. 빛, 깜박이는 녹색 숫자는 세월호가 가리라고 있다는 신고전화를 처음 한 시각이다. 해경에 의해 장난전화로 치부돼 버린.

많은 가치를 뺏고 있는 금속 나무에 얹힌 건 하얀 목화송이다. 작품 제목은 '꽃은 반드시 피어야 한다.' 바닷속에 갇혀 있는 아홉명을 기다리는 모성을 표현한 'mother'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제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박정용 초대전 '온전히 求하리라'전에는 세월호 사건을 담담히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 중이다.

작가는 먹먹한 마음에 지난 5월 7일 홀로 팽목항을 찾았고,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모든 조형의 힘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작품을 제작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내가 내 스스

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진행했어야 할 일이다.

갤러리 중앙에 자리한 '온전히 구하리라'는 125일 동안 진도 앞바다 물에 넣었다 끄집어낸 조각상이다. 파개비 등이 그대로 붙어 있는 웅크린 사람 형상의 조각은 크레인에 의해 구조된 모습이다.

어디선가 애타게 누구를 찾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 "저기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작은 잠수함 모형의 작품 속 푸른 창문 너머로 다급한 여학생의 목소리와 창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손바닥이 가슴 아프다. 작품 '저기요'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각상과 검은 물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 짙게 갈라지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균열과 파장'까지 전시작 모두 가슴에 남는다.

박정용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남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다. 전시회는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222-9301.

△순천 스페이스1839 '기록할 수 없는 기억, 군(軍)전'

순천 스페이스1839는 다음달 15일까지 '기록할 수 없는 기억, 군(軍)전'을 개최한다. 군대에 간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위로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전시다.

한겨레 신문 사진부 선임기자이기도 한 강재훈씨는 32년 전 아픈 병역기록을 다시 끄집어낸다. 군대에서 폭력에 시달렸던 작가는 아직도 기우에 놀리는 등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강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당시 촬영했던 필름들을 현상하면서 "그때 폭력에 시달렸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2년 전 '군용(軍用)'이라는 사진집을 펴냈던 이한구씨는 사진집에 실렸던 작품들을 보여준다.

그는 20여년 전 군대 내부의 생활과 사물들을 몰래 찍은 필름들을 비닐로 싸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휴가 나올 때마다 몰래 가지고 나와 현상했다. 작가와 동고동락한 동료들의 모습과 함께 군대 내부 반과 물건들의 모습이 비친다. 이씨는 내년 미국 휴스턴미술관에서 '군용' 사진전을 연다.



박정용 작 '균열과 파장'



이한구 작 '군용(軍用)-군용 매트리스와 병사의 발목'

이규철씨는 1991년 무렵 군생활하던 시절의 사진을 보여준다. 내무반 바닥에서 '원산폭격'을 하는 모습, 바짝 굳기가 들어 있는 신병의 굳은 표정, 철조망 앞에서 편지를 읽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군대 입소를 앞둔 20대 청년들의 초상

작업을 해온 강재훈씨는 논산 훈련소에서 이별하는 순간의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과 함께 첫 휴가 나왔을 때 변화된 모습을 담은 작품을 보여준다. 문의 061-742-18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윤두서' 심포지엄 내일 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기획특별전 '공재 윤두서'와 연계해 26일 오전 10시부터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안희준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재 윤두서의 회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조선시대 회화사의 시작을 알리는 윤두서의 회화사적 의미와 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어 박은순 덕성여대 교수가 '조선 후기 선비 그림의 선구자'를 테마로 조선 후기 회화의 다양한 경향을 선도하며 학문과 사상이 담긴 새로운 차원의 선비그림을 창조해 낸 윤두서의 회화세계에 대해 발표하고, 이동국 예술의 전당 서예부장이 '공재 윤두서의 서예'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윤두서의 자화상 : 사실과 해석'(조인수 한예종 교수), '윤두서 일가의 회화가 후대에 미친 영향'(박해운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공재 윤두서의 한시 세계'(김대현 전남대 교수), '공재 윤두서의 학문과 실학사상'(정운섭 고산문화재단 학예연구사, 김상업 문화재청 문화재감정 전서관 학예사) 등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좌장 이태호 명지대 교수 주재로 이영수 규남박물관 관장, 장지훈 경기대 사예학과 교수, 이수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상업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한예원 조선대 교수, 이욱 국립순천대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의 062-570-703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허형만 시인 한국예술상 수상

제7회 한국예술상 시 부문에 허형만(목포대 명예교수) 시인이 선정됐다.



허 시인의 시집 '불타는 열음'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예술에 40여 년을 몸담아 창작에 매진해오면서 한국의 시문학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예술적 성과를 보여왔다"고 평했다. 상금은 각 500만 원. 시상식은 12월 6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상 미술 부문에는 박용인 화가의 '암스테르담'이 선정됐다.

한편 허 시인은 순천 출신으로, 중앙대 국문학과를 나와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해 '청명' '풀잎이 하나님에게' '비 잠 시 그친 뒤' '첫 차' 등의 시집을 펴냈다. 영광시문학상과 심연시문학상, 월간문학동리상, 전남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파도치는 날 이베를 지어'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 오르다

DS갤러리 박종석전... 12월 3일까지

지난 24년 동안 40여 개국 오지를 직접 탐험했던 산악인 한국화가 박종석씨의 작품을 마주하면 거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진다. 세계 오지의 풍경과 삶을 화폭에 담아

온 박씨가 오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DS갤러리에서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차 가운데 13개 봉우리를 화폭에 담은 7m 대작 3점을 포함해

모두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박씨가 8년 동안 연재한 월간 '사람과 산' 창간 25주년 기념행사로 200여 점의 작품이 실린 '히말라야 14차 화집' 출판기념전도 겸해 열리는 전시다.

작가는 물질위주의 현대사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사람들의 인간미를 작품에 투영시켰다. 주로 밤하늘의 배경에 펼쳐지는 별빛에 시선이 모인다. 박씨가 때론 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별빛에 담아서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박씨는 제6회 광주미술상(2000)과 제2회 서암전통문화대상(2012)을 수상했다. 그동안 아프리카, 남아공, 짐바브웨, 페루 등 오지는 물론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대'(2007) 등과 함께 8000m급 13개봉을 탐방했다. 문의 062-233-391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 용장사 본래 이름은 금사사?

사찰명 새겨진 기와 발굴

삼별초가 대몽 항쟁기간 왕궁지로 사용하고자 폐지한 사찰명이 '용장사'가 아닌 '금사사(金沙寺)'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대박물관은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진도에 소재한 사적 126호 용장성(龍藏城) 왕궁지에 대한 제6차 발굴조사에서 사찰명 기와를 최초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물관은 왕궁지 궁정(궁궐을 둘러싼 성벽) 북벽 바깥쪽에서 '금사사'란 사찰명이 새겨진 명문기와의 확인했다.

새겨진 여러 글자들은 '太平十年庚午四月(태평십년경오사월)..金沙寺(금사사)..造인(조인)'으로 판독했다. 태평은 중국 요

나라 성종(1021~1030)의 재위기간에 사용된 연호(年號)다. 태평십년경오는 1030년(현종 21)으로 볼 수 있다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용장성 왕궁지는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9~10세기 무렵 나말여 초기에 창건, 운영돼 온 산지가람을 강제로 폐기하고 폐기된 공간과 주변을 확장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사찰은 그동안 용장사라고 알려져 왔다. 명문기와 등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박물관은 25일 오후 3시 발굴현장에서 왕궁지에 대한 학술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58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력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AN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광주전남대리점
IPALG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